

# 공설 장사시설 조성 본격화

### 장수군, 군민 불편 해소 위해 상반기 토지 매입·11월 착공·2027년 개소 목표

장수군이 군정 핵심사업인 '공설 장사시설 조성사업' 추진에 팔을 걷어붙인다.

최근 장사문화의 인식 변화와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로 화장률이 급증하면서 화장 후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이용에 대한 주민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장수군 내에는 장사시설이 없어 타 지역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과 제한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3일 군에 따르면 관내 장사시설 부재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지역 내 장사시설 조성을

모색했으며 그간 장사시설 조성사업 부지 공모를 통해 계남면 가곡리 일대를 선정, 타당성 용역 및 추진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

군은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T/F 팀을 구성해 2025년 상반기 중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올 11월 착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장사시설을 개소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을 대상으로 토지보상 및 분묘이장 홍보

를 진행해 원활한 보상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공설장사시설 조성은 늘어나는 화장률에 대비한 필수 사항이지만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연친화적이고 현대적인 공설 장사시설을 조성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장사시설 설치에 의해 봉안당 조성비용으로 20억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국·도비를 확보해 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군,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 계절관리제·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운영 시간 단축 등 시행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대기질이 우려 수준으로 치달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계절 관리 기간인 3월까지 공회전 단속을 비롯한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불법소각 단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대기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을 활용해 대응 요청을 적극 공유, 실천을 도모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불법 배출 상황을



살피는 민간 감시단을 구성·운영한다. 농촌지역의 영농 폐기물 불법소각 및 대기 배출사업장 단속도 강화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군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일상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이 자연특별시

무주의 아름다운 자연,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든든한 동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초미세먼지(PM2.5) 농도 50㎍/m<sup>3</sup> 초과)됐던 지난 21일(17:15~) 재난 대응체계를 즉각 가동(22일 06:00~21:00)해 눈길을 끌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역 내 행정·공공기관 10곳이 공공차량 2부제 시행에 동참했으며 광역전차리시설 등 공공사업장 2곳,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34곳의 운영 시간을 단축했다.

도로 먼지 제비산 방지를 위해 진공노면 청소차를 추가로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를 서둘렀으며 미세먼지 신호등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메시지 전파로 미세먼지 노출 피해를 최소화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장수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21일 장수시장, 23일 장계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행사 참가자들은 직접 장을 보며 명절 성수품 물가를 점검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전개했다.

행사에 참석한 최훈식 군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며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

살피는 민간 감시단을 구성·운영한다. 농촌지역의 영농 폐기물 불법소각 및 대기 배출사업장 단속도 강화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군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일상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이 자연특별시

### 무주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과수화상병 방제 지원

무주군이 영농부산물 파쇄 서비스를 시행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영농작업 후 남은 과수 잔지목을 파쇄해 퇴비로 환원한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31일까지 하면 되며 무주군은 이 사업을 통해 불법소각을 줄이는 한편, 산불 및 병해충 예방,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친환경기술팀 강혜경 팀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은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 취약계층 농가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2월부터 6개조 30여 명의 파쇄지원단이 6개 읍면을 돌며 영농부산물을 수거,

동력 파쇄기를 이용해 과수 잔지목 파쇄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도 공급한다. 과수화상병은 전염성이 강하고 피해도 커 사전방제가 중요하다. 이에 무주군은 관련 약제 무상 공급과 함께 수시 예찰과 교육을 진행한다.

1월 방제약제 협의회에서 약제를 선정하고 2월에 방제약제 공급업체 선정을 마무리하면 1차 방제약제는 2월, 2~4차 방제약제는 4월에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과수화상병 예방 농업인 교육 이수 의무화가 시행됨(2025. 1. 1.)에 따라 농업인은 연 1회(1시간 이상)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의회는 23일 최근 정부에서 시행 예정인 벼 재배면적 조정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했다.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하라"

### 진안군의회, 전면 재검토·새로운 쌀 생산 대책 강구 등 촉구

진안군의회(의장 동형욱)는 23일 최근 정부에서 시행 예정인 벼 재배면적 조정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 8만ha, 전북특별자치도는 1만2,152ha, 진안군은 2030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진안군 재배 필지별로 12.37%의 면적 감축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김명갑 의원은 "이 정책이 단기적으로 쌀의 공급과잉 해소와 벼 품질 고급화, 농가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식량안보·식량위기·농업인의 생계 보전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벼 재배 면적의 강제 감축은 단기적으로 쌀 생산량 감소로 인해 벼

가격 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농민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며, 진안군의회는 농업이 단순한 생산 활동을 넘어 지역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안군은 농림축산업이 경제 기반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 활동의 감소가 지역 사회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의회는 △정부의 벼 재배 면적 조정제의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새로운 쌀 생산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 △진안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고추·고구마 등 7개 주요 품목에 대해 논 타작물 생산 장려금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필리핀 현지서 계절근로자 도입 논의

### 전춘성 군수, 면접 진행·웰프리로 마크 위원장과 면담 나서

진안군은 관내 영농 농가들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격 도입을 위해 필리핀의 협안 체결 3개 지자체를 찾아 현지 최종 면접에 나섰다.

19일~28일까지 진행되는 현지 면접은 필리핀 케비테주 마갈레스시, 퀴리노주, 이사벨라주 등 3개 주에서 추진됐으며 사전에 해당 주에 계절 근로 희망자 모집을 요청해 1차 전형을 통과한 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지 최종 면접관으로는 전춘성 군수를 비롯한 군청 관계자, 공공형 운영 주체인 진안군 조공, 농가형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농촌일손지원센터 관계자가 나서 지원자들의 선행 여부, 기초체력 및 신체능력 테스트와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전춘성 군수가 필리핀 케존시티의 하원의원 펠프



리도 마크(농업 및 식량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협력관계를 공고히 유지하기로 하는 면담을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전춘성 군수는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도 좋은 환경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진안군에 우수한 계절 근로자를 영용할 작기에 도입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고원김치보쌈축제 2년 연속 우수축제 선정

진안군 대표 맛 축제인 '진안고원김치보쌈축제'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축제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축제로 선정되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성공적인 축제 모델로 떠올랐다.

진안고원김치보쌈축제는 지역의 청정 농산물을 만든 김치와 진안 흑돼지를 사용한 보쌈을 주제로, 전통과 현대의 맛과 멋을 결합한 독창적인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축제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진안YMCA에서 △우리집 김치 담그기 프로그램, △즐거움(즐거움김장, 즐기느장) 공연, △음식 부스 운영, △지역 농산물을 직거래센터, △김치골든벨, 쇼미더김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김치와 보쌈을 매개로 한 체험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며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

진안군은 앞으로도 진안고원김치보쌈축제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통문화와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차별화된 축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덕유산국립공원, 불법 무질서 행위 특별 단속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길선)는 겨울 성수기를 맞이하여 탐방객 급증으로 인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겨울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순찰팀을 가동하여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2월 16일까지를 겨울 성수기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불법 취사·야영행위, 비법정탐방로 출입, 산 정상(향적봉, 중봉) 및 대피소(향적봉, 삿갓재) 일원 음주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 시 적발될 경우, 불법행위 사안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 10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